

# 2년만에 또...목포시·의회 주민세 인상 고민

### 시, 교부세 삭감에 1만원으로 인상 조례 개정 나서 지역민 반발 부담·정부 압박에 시의회 심의 골머리

목포시와 목포시의회가 현행 7000원인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정부의 교부세 지원 폐널티를 감안하면 인상이 시급하지만, 2년 만에 또다시 주민세를 올릴 경우 지역민들의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목포시는 20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보통교부세 산정 시 폐널티(감액)를 적용함에 따라 주민세 현실화를 위해 시세 조례 일부 개정안"을 내세웠다.

최근 5년 동안 폐널티 적용으로 44억원의 교부세를 삭감당하는 불이익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매년 5억원 이상 삭감이 예상돼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목포시의 주장이다. 현재 전국 161개 지자체 중 145개 지자체가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전남에서도 여수(2015년 12월)·순천(2016년 2월)·나주(2016년 4월)·광양(2015년 7월) 등 시 단위는 모두 1만원으로 인상됐다. 목포시는 주민세가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2억7700만원의 세수 증대와 함께 정부로부터 8억5200만원의 교부세 혜택을 받게 돼 총 11억2900만원의 세입 증대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목포시는 특히 주민세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감액 전액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대상 사업이나 주민자치 활성화 예산으로 사용해 시민들에게 전부 되돌려 줄 계획이다. 목포시 세정과 관계자는 "주민세는 오로지 시민의 행복한 삶 실현을 위한 주민 숙원사업과 자치활동 지원에 쓰여야 한다는 박홍률 시장의 의지를 반영해 전액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시민 부담 가중을 고려해 지금까지 주민세 인상을 미루어

왔지만 전국적인 조세형평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세 인상안 심의를 둘러싸고 목포시의회는 딜레마에 빠졌다. 지난 2014년 4500원이던 주민세를 7000원으로 올린 지 2년밖에 경과하지 않은데다가 또 3000원을 올려야 하는 부담감 때문이다.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A의원은 "표면적으로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지자체장 권한으로 올리는 거지만 사실상 정부가 폐널티를 빌미로 '주민세를 올려라'고 압력을 가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해야 하는 시의회 입장에서 고민이 많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시 민원봉사실 내 직원들이 지역민을 대상으로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 내년부터 '민원친절 대상' 뽑아 주세요

### 목포시, 서비스 향상 추진

목포시가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민원친절 대상'을 신설하고 내년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20일 목포시에 따르면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 측정을 위해 민원 창구를 방문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외부 기관에 의뢰해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해 시민들이 뽑은 '민원친절 대상'을 시상하기로 했다. 목포시는 본청 민원실과 관내 23개 동 민원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 리서치 기관 설문조사를 실시해 친절 대상 1곳, 우수상 2곳, 장려상 3곳 등 총 6개 부서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민원인들과 접촉하는 모든 창구에는 '낮은 허리 웃는 얼굴, 부드러운 자세로'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부착된다. 목포시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여과되지 않은 생생한 시민들의 사후 설문에 의한 친절도 평가가 가능해져 대시민 신뢰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윤재 목포시 민원봉사실장은 "외부 설문조사기관의 객관적 측정을 통한 '민원친절 대상'이 시행되면 선정된 부서의 자부심 고취는 물론 공직사회 친절 경쟁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이 감동하는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 목포 내년 시정 체류형 관광도시 기반 구축 올인

### 박홍률 시장 '1000만 관광' 실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키로

### 해상케이블카·고하도 개발 연계 '글로벌 상품' 개발 추진

목포시의 2017년 시정 목표는 민선 6기 핵심 공약가운데 하나인 '체류형 관광도시' 구축에 올인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홍률 시장은 지난 18일 목포시의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해상케이블카 설치와 고하도 개발 등 체류형 관광도시 구축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선제적 마케팅을 추진하는 데 전행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시장은 목포관광 1000만 시대 조기 실현을 위한 '목포 관광발전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박 시장은 목포관광역진 변화에 맞는 관광발전 종합 계획 수립을 위해 실무자·시민·전문가 등이 참여, 관광 통계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관광실태를 진단해 실

호성 있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목포시는 한국 지역진흥재단에 의뢰해 내년 1월부터 7월까지 관광지 방문 현황, 관광객 특성(연령, 지역), 지출 규모 등을 집계하는 관광 통계 조사를 나선다. 이 빅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요 관광지 활성화 사업, 관광 마케팅 및 우수업체 방안은 물론 도시재생·문화예술·교통·숙박·음식·쇼핑·특산품 등을 총망라하는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게 된다. 특히 이번 조사는 그동안 주목구석의 통계에 의존해 왔던 것을 탈피해 공신력 있는 최초의 통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목포시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목포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 팀(T/F팀)과 교수·연구원·시민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자문단을



박홍률 목포시장(가운데)이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참석해 2017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구축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또 "목포시가 비교 우위에 있는 일본 관련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을 타깃으로 하는 '글로벌(Glocal) 관광 상품' 개발에 나서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현재 일본 관련 관광자원으로는 목포권의 유달동 근대역사문화타운, 일본식 가옥, 공생원 등을 비롯해 영암권에는 왕인박사 유적지와 농업박물관이 있으며 해남권에는 해양 주조장과 대흥사 숲길 산책로 등이 꼽힌다. 이를 위해 목포시 관광과는 내년 1월 관련 시·군 협의를 거쳐 2월중으로 공동 계획 수립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어 3월에는 무안국제공항, 전남도,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한 업무 협약을 구성할 계획이었다. 박 시장은 이어 "목포시의 역사와 전통 문화 지역특산물들을 소재로 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번 목포 대표 관광상품 개발은 관광객이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1·3·5만원대 중·저가 대중성 상품 개발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를 위해 관광과는 내년 2월~5월 까지 3개월 동안 대학 관광관련 학과 등 전국을 대상으로 '목포시 대표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하기로 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 유달동에 사랑의 연탄 나눔 '활활'

### NGO휴먼인터브·덕인고생·라이온스비파클럽 등 선행 잇따라

목포의 대표 낙후지역인 유달동에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국제개발 NGO 휴먼인터브 목포지부(지부장 김해성)는 최근 유달동 취약계층 5가정을 찾아 연탄 1500장을 전달했다. 목포 덕인고등학교 학생 300여명도 참여해 유달산 기슭 고지대에 거주하는 지리적 특성상 연탄 공급이 여의치 못한 독거노인 가

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사진> 라이온스 비파클럽(회장 백재봉)도 유달동 관내 독거노인 및 만성질환자 등 형편이 어려운 가정 8가구에 연탄 3000장을 전달했다. 정효진 유달동장은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에 감사드리며, 더불어 함께 사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 첫 공연한 유달예술타운, 원도심 문화갈증 해소 '톡톡'



목포 원도심 내 유일한 공연장인 유달 예술타운이 지난 1월 정식 개관 이후 그동안 하자 보수공사를 거쳐 최근 첫 공연을 갖고, 문화공연시설로서 협찬 첫 걸음을 내딛었다. 20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개관 이후 처음으로 연극 '우리 동네 이야기(우동이)'를 무대에 올려 2회 공연에 600여명의 관객이 몰리는 성황을 이뤘다. 이날 광주 극단 '리브 워드'에 의해 공연된 '우동이'는 아버지-어머니 시대의 삶을 극화한 것으로 가족 단위 관객들이 많이 찾았다. 특히 객석이 180석에 불과한 소규모 공연장에 회당 300여명의 관객이 몰리면서 접이식 의자 100여개를 준비할 만

큼 성공을 거둔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예술타운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두 번째 공연으로 추억의 인형극장 '다순구미'가 무대에 오른다. 어린이극 전문 극단인 '아피'의 인형극 다순구미는 1970년대 목포 바다의 삶의 터전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마치 흑백영화를 보는 듯 어린 시절 추억의 단편들을 떠올리게 한다. 예술타운 관계자는 "예술단체 입주와 상시 공연이 가능한 문화소통 공간으로 하자 보수공사가 마무리돼 현재 예술 단체들이 입주 중"이라며 "공연장 대관료가 저렴해 타지에서 대관문의가 계속 이어지는 등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새로운 혁신! 세상 어디에도 없던 디스포저  
세계최초 BLDC 전자모터 음식물 분쇄기

**SDR SMART DISPOSER ROOT**

**황금맷돌**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

발명특허제품 · KC 전기용품 안전인증 · 환경부/상하수도협회 인증

10년 보장(모터) 10년 보장(모터)

3년 연속 조선일보 선정 대한민국을 빛낸 히트상품 선정

상/담/문/의 (062) 515-1144

양산지구를 빛낼 39층 초고층 랜드마크 프리미엄!

모델하우스 성황리 공개중!  
1%를 위한 명품! 안전설계! 혁신평면구조

양산지구 · 첨단 더블 프리미엄!

양산지구 스카이뷰 유탑유블레스

계약금 5%로 내집마련 (1,100만원~내집마련)

2억 초반대~ 중소형 아파트~!

중도금 무이자! 무제한 전매!

중소형 (구)26형 / (구)30형

분양문의 351-4610 (062)

회사보유분 특별분양!

(주)유탑디앤씨 (주)유탑건설 (주)유탑